

제주도 무가·무속 연구의 성과와 과제

강소전*

국문요약

이 글은 해방 후 지난 70년간 이루어진 제주도 무가·무속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다루었다. 무가를 먼저 다룬 뒤 무속을 검토하였다. 각각 분야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학문적 관심을 보여준 연구자들의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주도 무가와 무속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가는 무속의례에서 구송되는 것이니 넓게 보자면 무속의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무속은 다양한 무가의 존재로 인하여 그 양상과 의미가 더욱 풍부해졌다. 제주도 무가와 무속 연구의 성과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성기, 장주근, 현용준 등의 선구자들이 연구의 토대를 놓았다. 특히 현용준은 무가와 무속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큰 업적을 이루었다. 후속세대 가운데는 문무병, 김헌선, 강정식의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 제주도 무가와 무속 연구는 이른 시기부터 제주학을 이끌었다.

무가와 무속 연구의 과제도 당연히 있다. 무가에서는 갈래별, 유형별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속에서는 다양한 의례양상, 심방, 신앙민, 무악, 무구 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진면

* 제주대학교

목을 드러낼 수 있다. 무가와 무속 분야에 공통되는 과제도 있다. 무가와 무속의 상호관계성 확인이 필요하다. 비교연구를 통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일반적인 원리와 이론을 수립할 수 있는 큰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학술적으로 의미 있고 완성도 높은 자료집이 꾸준히 발간되어야 한다. 후속세대의 양성 역시 큰 과제이다.

주제어 : 제주도, 무가, 무속, 제주학, 현용준

I. 머리말

이 글은 해방 이후 제주도 무가·무속의 연구 성과와 과제를 다룬다. 해방 뒤 7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주도(濟州島)라는 지역적 범위를 대상으로 연구의 진행과정을 알아보는 것이다. 물론 해방 전에도 주로 일본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초 자료수집과 단편적인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연구는 19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60년 가까이 초기 연구를 이끌었던 학문 선구자들부터 그 뒤를 이은 학문 후속세대들까지 제주도 무가와 무속에 대하여 어떤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고민하였는지 그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제주도 무가와 무속이 학문적으로 발견되는 과정은 흥미롭다. 장주근은 1955년 갓 서른에 제주대학으로 와서 제주도 무가와 무속을 접하고는 많은 의문과 벅찬 현장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현용준은 부인의 첫 출산과 육아과정에서 비로소 무가와 무속의 세계를 만났다고 하였다. 진성기는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향토문화에 눈을 떠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근대화와 미신타파의 물결 속에서도 이들은 열정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고 그 성과는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데 큰 밑바탕이 되었다. 셋 모두 제주도 무가·무속과 가슴 벅찬 조우를 한 셈이다.

제주도 무가와 무속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가는 무속의례에서 구송되는 것이니 넓게 보자면 무속의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 무속은 다양한 무가의 존재로 인하여 그 양상과 의미가 더욱 풍부해졌다. 둘 가운데는 무가 분야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 연구자들이 국문학적 차원에서 구비전승인 무가에 먼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무가를 둘러싼 무속으로 관심을 확대하였다. 무속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굿과 비넵이라는 무속의례, 심방(무당), 무구, 신당, 단골 등으로 구비문학을 넘어 민속학 분야까지 다루어야 했기 때문이다. 선구자들 가운데 특히 현용준이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감당하였다. 무가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무속으로 나아갔고, 그 덕분에 무가와 무속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전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무가 연구를 먼저 다룬 뒤 무속 연구를 검토하기로 한다. 무가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기도 하고 그 성과가 더욱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무가 연구는 좁게는 무가 텍스트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범위가 넓은 편이다. 그에 견주어 무속 분야는 현장조사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속문화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기 때문에 복합적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폭이 무가보다 넓지 못하다. 각각 분야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학문적 관심을 보여준 연구자들의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이 글에서 무가와 무속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방법이 마냥 적절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무가와 무속을 넘나들거나 아우르며 연구를 진행한 이도 여럿 있고, 근래에는 무가와 무속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한 결과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사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무가와 무속으로 나누어 서술하기로 한다. 각각 구비문학적 관

심과 민속학적 관심이 보다 중심적으로 반영되었다는 변별성도 있기 때문이다. 각 분야마다 개별 연구자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 또한 완전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연구 대상이나 혹은 주제로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연구자가 다양한 대상과 주제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므로 해당 항목마다 거듭 서술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여러모로 무가와 무속은 둘로 나누기 어렵고 하나와 같은 속성이 있으므로 연구사 서술 방법을 고민하게 만든다. 여전히 연구자의 시선과 통찰이 학문발전을 이끌기 때문에 연구자 중심의 서술을 택하기로 한다.

II. 제주도 무가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주도 무가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알아본다. 무가에 대한 관심은 일제강점기 때인 1930년대에 시작되었다. 사실 이때는 연구보다는 단편적이거나 무가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해방 뒤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인 연구자들이 본격적인 자료수집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기자재 미비로 무가 수집이 고역이었으나 점차 사정이 나아지면서 최근까지 꾸준히 채록이 이루어진 편이다. 무속의례의 현장 속에서 무가를 채록할 수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다만 무가의 현장채록과 수집을 담당하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수월치 않고 채록한 무가를 온전하게 전사하여 자료화 할 수 있는 연구자가 귀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몇몇 연구자들의 각성과 인내를 바탕으로 무가자료가 수집되었고, 결국 이를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여 무가 연구가 다방면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동안 여러 난관을 뚫고 이루어진 무가 연구의 성과에 대해 대표적

인 저작과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과제를 점검하기로 한다.

1. 무가 연구의 성과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루어진 성과를 먼저 간단히 언급한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1932년 『朝鮮の巫覡』에 제주도의 초공연기(初公緣起)와 신중도পুর이(神僧都緣記)를 수록하였다.¹⁾ 이어 아카마쓰 지쵸(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1937~1938년에 『朝鮮巫俗의 研究』(上/下)를 함께 펴내었다.²⁾ 이 가운데 상권은 무속 자료집으로 제주도신가(濟州島神歌)16편을 실었다. 이 제주도신가는 현지를 답사하고 서귀포에 거주하던 남무(男巫) 박봉춘(朴奉春)을 제보자로 하여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채록한 결과이다. 여러 본풀이 유형과 무가 자료까지 고루 포함된 편이다. 앞서 무라야마의 신중도পুর이는 아키바의 작업과 관련된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하여 단편적이거나 최초로 제주도 무가 수집이 이루어졌다.³⁾ 이들의 작업은 나중에 한국인 학자들의 연구를 자극하고 기초 자료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해방 뒤에는 한국인 학자들이 무가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우선 1950년대 후반부터 직접 무가 수집에 나서 1960년대에는 더욱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당시 제주도 무가 연구를 시작한 이들은 진성기, 장주근, 현용준이다. 셋 가운데 누구를 앞세우는

-
- 1) 村山智順, 1932, 『朝鮮の巫覡』, 朝鮮總督府(1972년에 學文閣에서 영인본 발행).
 - 2) 赤松智城·秋葉隆 지음, 沈雨晟 옮김, 1991, 『朝鮮巫俗의 研究』(上/下), 동문선.
 - 3) 일본인 연구자들은 현재까지도 제주도 무가와 무속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제주학회의 학술대회 방침에 따라 외국의 연구 성과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학문적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 이는 장주근이다. 그는 현용준이 무가와 무속을 연구하는 데 영향을 주었고, 진성기와도 함께 조사를 하였다.⁴⁾ 진성기와 현용준은 제주도 출신 연구자로서 제주 방언과 풍속을 이해하는 일이 보다 수월하였기 때문에 많은 현장자료를 수집·정리할 수 있었다. 셋의 핵심적인 연구 저작 발간시기를 기준으로 서술한다면 진성기, 장주근, 현용준의 순서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 시기에는 조사여건이 미비해 인위적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진성기는 1950년대부터 현장조사에 뛰어들었다.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이미 10대 시절부터 향토의 구비전승에 관심이 많았다.⁵⁾ 결국 1956~1963년에 걸친 무가조사를 바탕으로 1968년에 무가자료집인 『南國의 巫歌』를 발간하기에 이른다.⁶⁾ 그는 제주도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심방들을 두루 만나 다양한 종류의 무가를 수집하였다. 『南國의 巫歌』에서는 약 500여 편의 본풀이를 묶어내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본풀이, 신당본풀이, 특수본풀이, 조상본이라고 분류하여 놓은 서사무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본풀이라고 명명한 분류가 이때 등장하였다. 이밖에도 초감제, 하정, 푸다시, 비념 등의 교술무가도 일부 수록해 놓았다.

무가 관련 그의 성과는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것이다. 『南國의 巫歌』는 여러 심방을 대상으로 채록한 이본(異本)들이 많이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하다. 이는 같은 내용의 본풀이를 서로 견주어 볼 수 있는 이점을 주었다. 당시 선구자들의 무가 수집 경향과 차별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다만 무가 수

4) 장주근, 2007, 「제주도 무속 연구의 회고」,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5) 진성기, 1993, 『濟州島巫俗論考：南國의 巫俗』, 제주민속연구소.

6) 진성기, 1968, 『南國의 巫歌』, 제주민속연구소(유인판). 이 무가자료집은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1)으로 다시 발행되었다.

집에 견주어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연구 초기에 주로 당신본풀이를 대상으로 몇 차례 발표를 하였을 뿐이고, 대부분 일반 잡지에 기고하는 작업을 많이 하였다.

장주근은 1955년에 제주대학에 부임한 것을 계기로 무가 연구를 시작하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무가를 조사하면서 1962년에 고대중 심방의 무가를 채록한 작업이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 결과로 우선 당신본풀이를 『濟州島 巫俗』에 수록하였다.⁷⁾ 이 자료는 1957~1959년의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1970년도 자료까지 포함하였다. 제보한 심방도 김오생, 고봉선, 이달춘, 고대중, 강철년, 양태옥 등 여럿이었다. 그는 나중에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를 통하여 수집한 무가 자료를 다시 정리하였다.⁸⁾ 여기에는 삼승할망본풀이(1999년 이정자 심방 구송)만 제외하고 온전히 1962년 고대중 심방의 일반신본풀이를 실었다.

그는 1971년 문화재관리국의 조사보고를 담은 『濟州島 巫俗』에서 제주도 본풀이의 정의, 분류, 기능, 형성과 모티브, 구성과 주제 등에 대한 초기 학문적 연구결과를 밝혔다. 더불어 삼성신화와 당신본풀이 등을 중심으로 무가 연구를 전개하였다.⁹⁾ 그 가운데 「제주도 서

7)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0, 『濟州島 巫俗』,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8) 장주근, 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장주근이 수집한 본풀이는 『韓國의民間信仰, 資料篇』(金花舍, 1973)에 먼저 수록된 바 있다.

9) 장주근, 1960, 「삼성시조신화 해석의 한 시도」, 『국어국문학』 22호, 국어국문학회. ; 장주근, 1986, 「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 『경기어문학』 7집, 경기대 국어국문학회. ; 장주근, 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제주도연구』 제6집, 제주도연구회. ; 장주근, 1989, 「구전신화의 문헌신화화 과정 :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삼성시조신화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18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장주근, 1994, 「삼성신화의 형성과 문헌정착과정」, 『탐라문화』 제1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장주근, 1994, 「제주도 서사무가(본풀이) 전승의 현장연구」, 『제주도연구』 제11집, 제주도연구회.

사무가(본풀이) 전승의 현장연구」에서 심방들이 장형의 본풀이를 구연하는 데 일정한 상투어구 체계를 사용한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고대중 심방을 주요 제보자로 삼은 편이다. 연구자가 주로 한 명의 심방 자료만을 대상으로 수집 범위를 좁히는 것은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심방의 본풀이 문서를 고루 채록한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용준도 1950년대 후반부터 무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하였다. 그가 무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흥미롭다. 『한라산 오르듯이』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부인의 첫 출산과 육아과정에서 우연히 본풀이 구송과 비념을 체험한 뒤 본격적으로 본풀이 채록 작업에 나서게 되었기 때문이다.¹⁰⁾ 그는 제주도 무가뿐만 아니라 무속 연구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연구자이다. 제주도 무가·무속과 관련한 여러 주제를 두루 다루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현용준의 학문적 성과는 아직도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가 펴낸 일련의 저작물을 탐독하는 일은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는 하나의 통과례와도 같다. 따라서 현용준의 무가 연구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마땅하다.¹¹⁾

현용준의 무가 연구에 대하여 먼저 자료집의 발간을 검토한다. 그는 스스로 무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모범을 보였다. 대표적인 자료집은 『濟州島巫俗資料事典』이다.¹²⁾ 여기에는 1959~1967년 사이의 조사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사설(말명)과 본풀

10) 현용준, 2003, '신화(神話)·무속(巫俗) 연구의 길', 『한라산 오르듯이』, 각, 362~375쪽.

11) 현용준의 제주도 무가 연구에 대해서는 최근 강정식이 정리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강정식, 2017, 「현용준의 신화 연구 성과와 의의」, 『현용준 선생의 학문세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12) 현용준, 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이 등이 고루 수록되었다. 서사무가로는 일반신, 당신, 조상신 등의 본풀이를 두루 포함하였다. 무가와 의례의 관련성도 곳의 종류와 제차 중심으로 충실히 드러내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안사인 심방을 주제보자로 하였고 주로 인위적인 환경에서 채록하였는데 이는 당시 조사현실을 생각하면 불가피한 점이 있기는 하다. 이 저작은 현용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속세대들의 무가 연구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제주도 무가 연구에 가장 중요한 자료집으로 자리 잡기에 이른다.

『濟州島巫俗資料事典』에서 서사무가를 중심으로 일부 자료를 따로 떼어내서 출간한 것이 『제주도 무가』이다.¹³⁾ 이 책은 제주 방언 원문과 표준어역을 함께 실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찾는 자료집이 될 수 있었다. 현용준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 조사에도 참여하여 일부 무가 관련 자료를 남겼다.¹⁴⁾ 한편 그는 자신이 수집한 것은 아니지만 『風俗巫音』의 해제를 통하여 그 자료의 작성과정과 간행시기를 밝힌 적도 있었다.¹⁵⁾ 제주도 무가 수집은 진성기, 장주근, 현용준 등의 선구자가 모두 일정한 역할을 하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현용준은 무가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가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

현용준의 무가 연구는 『巫俗神話와 文獻神話』에 담겼다고 할 수

-
- 13) 현용준·현승환, 1996,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風俗巫音』 上·下,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이 자료는 제주도 서남부에서 활동하던 여무 문정봉의 무가를 그와 9촌 숙길 사이로 한학에 배웠던 문창현이 이두식 한자와 한글을 병기하여 적은 것이다. 현용준은 해제를 통하여 자료의 간행시기를 1982년으로 보았다.

있다.¹⁶⁾ 이 책은 제목이 드러내듯이 무속신화로 본풀이 연구를 하고,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문헌신화까지 나아갔다. 무속신화 연구에는 「무속신화 본풀이연구 서설」, 「제주도 당신화고」, 「삼성신화연구」, 「영감본풀이와 영감놀이」, 「제주도 개벽신화의 계통」, 「무속신화의 사회적 기능」 등의 글이 있다. 전체적인 양상을 보자면 본풀이의 개념, 형성, 형식, 내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당신본풀이 연구를 중심으로 삼았다. 본풀이의 형성에 대하여 태동형, 기원형, 기본형, 성장형, 완성형, 설화형이라고 이해하였다. 본풀이가 진화론적으로 성장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여기에 당신본풀이의 모티프와 기본형식을 설명하면서 해신당계, 본향당계, 칠일당계, 팔일당계 당신본풀이로 나누었다. 나아가 본향당계는 송당계, 한라산출생신계, 외래신계, 기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른바 신들의 계보를 확인한 점도 주목된다. 그는 무가를 통하여 문화의 형성, 계통, 배경 등을 해명하는 데도 관심을 보였다.

그의 무가 연구는 예상 밖으로 사실 기대만큼 많은 편은 아니다. 특히 일반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는 당신본풀이에 견주어 성과가 많지 않았다. 나중에 나온 저작인 『濟州島 巫俗과 그 周邊』과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에도 무가에 대한 관심이 일부 드러나기는 한다.¹⁷⁾ 이 가운데 후자에서는 일반신 신화, 당신 신화, 조상신 신화로 구분하여 그동안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의문점을 가진 사항들을 정리하여 놓았다. 그러나 이 의문점은 무가와 무속 분야를 두루 포괄하고 있어 무가에만 한정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물론 그는 본풀이 연구를 선구적으로 이끌고 문헌신화 이해에 무속신화 본풀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의 폭을 넓힌 면모는 있다. 그러나 전

16) 현용준, 1992,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17) 현용준, 2001, 『濟州島 巫俗과 그 周邊』, 집문당. ; 현용준, 2005,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체적으로 보면 현용준은 무가 연구에서 나중에는 무속 연구에 보다 더 힘을 기울였던 것 같다.

현용준 이후에는 고광민, 이수자, 문무병, 현승환 등이 무가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광민은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¹⁸⁾ 후자 논문의 관심이 주목된다. 본풀이에 나타난 당신들의 갈등과 대립양상이 각 마을의 자연적 배경, 풍토, 생업과 생활문화 양상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고광민은 이후 생업민속으로 연구분야를 바꾸었다. 이수자는 제주도 무가 관련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였다. 그의 연구 가운데는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¹⁹⁾ 큰굿이라는 무속의례와 무가를 바탕으로 큰굿의 구조, 제의적 성격, 세계관을 검토하였다. 현용준의 『濟州島巫俗資料事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였으나 지나치게 의존한 측면도 없지 않다. 문무병은 제주도 출신으로서 현용준의 뒤를 이어 꾸준한 작업을 전개하였다. 무가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도 당신앙 연구」를 발표하였고, 여러 심방들을 대상으로 인위적으로 채록한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²⁰⁾ 초기 선구자들의 무가 자료집을 잇는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무가보다는 무속에서 더 큰 역할을 하였다. 현승환은 「내 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 「사만이본풀이 연구」, 「제주도의

18) 고광민, 1982,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광민, 1983,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탐라문화』 제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 이수자, 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 논문은 나중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집문당, 2004)로 다시 발간되었다.

20) 문무병, 1993,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무병, 1998, 『제주도 무속신화 :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본풀이와 민담의 교섭양상 : 삼두구미본을 중심으로」등을 발표하였다.²¹⁾ 그러나 그는 무가 연구보다는 설화에 주로 관심을 두는 편이다.

김현선은 2000년대 들어 가장 활발히 제주도 무가와 무속을 연구한 이다. 도외 출신이어서 제주 방언과 풍속을 이해하고자 더욱 노력하였다. 그는 앞서 언급한 장주근의 제자이다. 지난 시기 스승이 그러하였듯이 2000년대 들어 제주도 무가와 무속 연구를 독려하고 이끄는 데 앞장섰다. 현장조사도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 분야에 꾸준한 연구자 가운데 교수 직함을 가진 이가 사실 드문데, 그는 제주도 관련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에도 힘썼다. 제주도 무가와 무속 연구에서 제주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그의 위치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의 무가 연구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등 대부분 영역에 걸쳐 있다. 일반신본풀이에서는 초공본, 천지왕본, 지장본, 칠성본, 삼승할망본 등을 다루었다.²²⁾ 초공본에서 입무의례와 연관하고 지장본에서 가창방식까지 다루고 있어 단지 텍스트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당신본풀이에서는 안덕면, 토산웃당과 알당, 조녹잇당,

21) 현승환, 1993, 「내 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현승환, 1993, 「삼공본풀이의 전승 의식」, 『탐라문화』 제1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현승환, 2000, 「사만이본풀이 연구」, 『백록어문』 16, 백록어문학회. ; 현승환, 2009, 「제주도의 본풀이와 민담의 교섭양상 : 삼두구미본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3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2) 김현선, 2002, 「제주도 '초공본풀이'의 영웅신화적 면모 : 구조분석, 입무의례, 신화적 성격 규명을 중심으로」, 『세계의 영웅신화』, 동방미디어. ; 김현선, 2005,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제28집, 비교민속학회. ; 김현선, 2005, 「제주도<지장본풀이>의 가창방식, 신화적 의미, 제의적 성격 연구」, 『한국무속학』 제10집, 한국무속학회. ; 김현선, 2005, 「<칠성본풀이>의 본풀이적 의의와 신화적 의미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고전문학회. ; 김현선, 2005,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 투쟁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 『민속학연구』 제17호, 국립민속박물관.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돛제와 퀘네킷당 등을 살폈다.²³⁾ 조상신본풀이에서는 단연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를 들 수 있다.²⁴⁾ 이 책은 김헌선의 조사 자료를 강정식이 전사하고, 현용준의 자료를 더하여 조상신본풀이를 한데 모은 것이다. 연구자들의 협업이 돋보이고 이후 조상신본풀이 연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제주도의 처지와 여러모로 유사한 유가와 아이누를 대상으로 비교연구도 진행하였다.²⁵⁾

강정식은 현용준과 문무병에 이어 제주도 출신 연구자의 학문적 대를 이었다. 처음에는 무가 연구에 집중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서 무속 분야까지 관심을 넓혔다. 현장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무가와 무속 분야 모두 정통하다. 앞선 제주 출신 연구자들이 점차 학문 현장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근래에 그의 역할이 더욱 소중해졌다. 무가·무속 자료의 수집과 제주 방언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지역 출신 연구자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의 무가 연구는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에서 비롯되었다.²⁶⁾ 이 가운데

23) 김헌선, 1999, 「제주도 안덕면 당신본풀이의 구비전승적 위상」, 『비교문화연구』 제5집,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김헌선, 2003, 「제주도 토산당 웃당본풀이와 알당본풀이의 비교」, 『한국사상과 문화』 제19집, 한국사상문화학회. ; 김헌선, 2005, 「<조록잇당신본풀이>의 전승 유형 연구 : 지역 유형과 광포 유형의 하위 유형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구비문학회. ; 김헌선, 2005,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제29집, 비교민속학회. ; 김헌선, 2007, 「제주도 돛제와 퀘네킷당 본풀이 연구」, 『탐라문화』 제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4) 김헌선·현용준·강정식, 2006,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5) 김헌선, 2002, 「제주도와 유구의 무조신화 비교연구」, 『민속학연구』 10집, 국립민속박물관. ; 김헌선, 2002, 「제주도와 아이누(アイヌ)의 구비서사시 비교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4집, 한국구비문학회.

후자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당신본풀이 연구는 수량이나 양상 측면에서 연구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이를 전반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특히 계보(系譜)라고 하여 신들의 좌정양상을 한라산계, 송당계, 예래계, 금약계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는 근래에 들어 제주무가의 전승양상, 연행양상, 조사현장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²⁷⁾ 현장조사의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무가의 실제적 면모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 「당신본풀이와 돼지고기 금기」라는 흥미로운 글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²⁸⁾ 그동안 제주도 무가무속에서 대표적인 수수께끼 중에 하나였던 당신본풀이와 돼지고기 금기의 상관성에 대해 본향신과 비본향신의 신 가르기이자 의례 가르기라는 설득력 있는 가설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그는 『한국구비문학대계』 발간 작업에도 참여하였다.²⁹⁾

허남춘도 근래 들어 무가 관련 글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간의 성과는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에 모아 담았다.³⁰⁾ 본풀이의 역사와 철학, 탐라건국신화, 설문대할망 설화, 칠성본풀이, 서귀본향당본풀이, 제주 해양신화에 대한 논

-
- 26) 강정식, 1987,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식, 2002,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7) 강정식, 2010, 「제주 지역 무가의 전승양상과 지역적 특성」, 『민속연구』 제20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강정식, 2011, 「제주무가의 연행양상」, 『민속연구』 제22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강정식, 2012, 「제주무가 조사현장의 현장성」, 『민속연구』 제24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28) 강정식, 「당신본풀이와 돼지고기 금기」, 한국구비문학회 2012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아직 정식 논문으로 제출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함께 다룬다.
- 29) 허남춘·강정식·강소진·송정희, 2014,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9-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①』, 한국학중앙연구원, 역락.
- 30) 허남춘, 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허남춘, 2017,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의를 전개하였다. 한편 그는 제주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지도학생들과 심방의 본풀이 채록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이용옥, 양창보, 고순안, 서순실 등 모두 네 명의 심방 본풀이를 수집할 수 있었다.³¹⁾ 허남춘과 대학원생들이 채록, 전사하여 발간한 이 무가 자료집들은 초기 선구자들의 작업 이후 실로 오래간만에 나온 것이다. 현장자료가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쉬움은 있지만 무가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권태효, 강진옥, 조현설, 신동훈 등은 한국의 설화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제주를 꾸준히 주목하는 이들이다. 권태효의 성과 가운데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의 상호관계를 다룬 것이 흥미롭다.³²⁾ 강진옥은 무속 여성신화에 대한 관심에 이어 근래에 차사본풀이와 해심곡에 대하여 거듭 다루었다.³³⁾ 조현설은 특히 여성신화에 관심을 보여주었다.³⁴⁾ 신동훈은 근래 일반신본풀이, 특수본풀이 연

31)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2009, 『이용옥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허남춘 외, 2010, 『양창보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허남춘 외, 2013, 『고순안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허남춘 외, 2015, 『서순실 심방 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32) 권태효, 1999, 「제주도 무속서사시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 <세경본풀이>에 미친 <송당계본풀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1, 한국민속학회. ; 권태효, 2000, 「제주도<맹감본풀이>의 형성에 미친 당신본풀이의 영향과 의미」, 『한국민속학』 32, 한국민속학회.

33) 강진옥, 2005, 「무속 여성신화와 농경적 생명원리 : <바리공주>와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0집, 한국구비문학회. ; 강진옥, 2010, 「<김치(金織)설화>의 존재양상과 <차사본풀이>의 형성 문제」, 『비교민속학』 제41집, 비교민속학회. ; 강진옥, 2012, 「<차사본풀이>연구 : 강림(姜林)의 저승여행과 존재전환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2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 강진옥, 2014, 「제주도 무가 <해심곡>연구 : <회심곡>사설의 수용과 변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8집, 한국구비문학회. ; 강진옥, 2014, 「저승여행담을 통해 본 제주도 무가 <해심곡>과 <차사본풀이>의 관계양상」, 『구비문학연구』 제39집, 한국구비문학회.

구 성과가 있다.³⁵⁾

정진희와 강소전은 제주도 출신 연구자이다. 정진희는 무가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데 유형별 본풀이 연구뿐만 아니라 비교연구, 현대적 활용까지 다양한 관심을 보였다.³⁶⁾ 강소전은 근래에 주제별로 조상신본풀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³⁷⁾ 사실 그동안 조상신본풀이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전주희, 신연우도 꾸준히 제주도 무가에 관심을 나타내는 이들이다. 전주희는 근래 지장본풀이에 관심을 보였다.³⁸⁾ 신연우는 최근 들어 초공본풀이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한 연구결과 10편을 한데 묶

- 34) 조현설, 2009,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권, 한국고전여성문학회. ; 조현설, 2011, 「제주 여신신화의 변형체계와 그 의미 : 일반신본풀이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36집, 제주학회. ; 조현설, 2013, 『마고할미 신화연구』, 민속원.
- 35) 신동훈, 2013, 「<세경본풀이> 서사와 삼세경 신직의 상관성 재론」, 『비교민속학』 제51집, 비교민속학회. ; 신동훈, 2015, 「창세신화의 연장으로 본 <세민황제본풀이> 연구」, 『구비문학연구』 제41집, 한국구비문학회.
- 36) 정진희, 1999,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희, 2002, 「제주 무가 이공본풀이의 신화적 의미에 관한 일고찰」, 『국문학연구』 제7호, 국문학회. ; 정진희, 2008, 「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 : 외부 권력의 간섭과 신화의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진희, 2009, 「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국문학연구』 제19호, 국문학회. ; 정진희, 2009, 「제주도 조상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 『제주도연구』 제32집, 제주학회. ; 정진희, 2010, 「제주도와 유구(琉球)·충승(沖繩) 신화 비교 연구의 검토와 전망」, 『탐라문화』 제3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정진희, 2013, 「풍농(豊農)의 원리 : <세경본풀이> 서사의 신화적 의미」, 『국문학연구』 제28호, 국문학회.
- 37) 강소전, 2010,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탐라문화』 제3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강소전, 2016, 「제주도 칠성의 형성과 본풀이 전승」, 『실천민속학연구』 제27집, 실천민속학회.
- 38) 전주희, 2009,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특수성 연구 : 서사와 제의적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회. ; 전주희, 2015, 「제주도 서사무가<지장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연구」, 『한국무속학』 제31집, 한국무속학회.

어 발표하였다.³⁹⁾ 하나의 본풀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한편 강권용, 윤정귀 등은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 기본풀이 등 특수본풀이를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내었다.⁴⁰⁾ 특수본풀이는 그동안 다른 무가에 견주어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특수본풀이라는 명명(命名), 위상, 의례 관련성, 현장조사 등 여러 측면에서 규명이나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래 들어 특수본풀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들이 다소 늘어난 점은 주목된다.

이경애, 최원오 등은 제주도 무가와 아이누, 오키나와, 만주 등 동아시아의 자료를 대상으로 비교연구에 힘썼다.⁴¹⁾ 국내자료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외자료까지 시야를 넓혔다. 비교 연구는 무가 자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연스럽게 제주도 무가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

39) 신연우, 2017, 『제주도 서사무가 초공본풀이의 신화성과 문학성』, 민속원.

40) 강권용, 2002,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 : <원천강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허궁애기본풀이>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정귀, 2013, 「<허궁애기본풀이>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밖에 최근 들어 간간히 특수본풀이 연구가 나오고 있다. 김혜정, 2010, 「제주도 특수본풀이 <원천강본풀이> 연구 : ‘신명’에 대한 재고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0집, 한국무속학회. ; 정제호, 2014, 「제주도 특수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연구」, 『한국무속학』 제28집, 한국무속학회. ; 신호림, 2017, 「삼두구미의 정체와 본풀이로의 수용과정 고찰」, 『한국무속학』 제34집, 한국무속학회.

41) 이경애, 2000, 「제주도와 아이누의 영웅서사시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원오, 2001, 「동아시아 무속영웅서사시의 변천과정 연구 : 제주도·만주족·허저족·아이누의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애, 2009,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무속서사시 비교 : 당신본풀이와 미야코지마(宮古島)의 후사(フサ)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3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권태효, 2009, 「«이족창세사»와 제주도 창세서사시의 비교 연구」, 『탐라문화』 제3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이춘희, 2015, 「제주도 「당신본풀이」와 아이누(アイヌ)의 「오이나 Oina」 비교 검토」, 『한국무속학』 제30집, 한국무속학회.

이기도 하다. 더불어 최근 Sung Ryu가 세경본풀이를 대상으로 하여 무가의 번역을 시도한 학위논문을 발표하였다.⁴²⁾ 무가 자료의 외국어 번역 작업은 해외 연구자들의 접근과 이해도를 높이고 세계에 우리 무가를 알릴 수 있어 역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번역에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무가 연구의 과제

제주도 무가에 대하여 흔히 ‘살아있는 신화’라고들 말한다. 아직도 의례 현장에서 심방이 구송하고 신앙민의 믿음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방들은 무가를 ‘굿 문서(文書)’라고 여기며 성무과정에서 이를 익히고자 애를 쓴다. 큰심방이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무가는 제주도 사람들의 의식, 관습, 문화의 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무가가 가진 종합적인 면모에 관심이 필요하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무가 연구의 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서사무가에 집중된 연구경향을 다른 갈래의 무가까지 확대해야 한다. 무가는 문학적 갈래로 보자면 서사무가, 서정무가, 교술무가, 희곡무가로 나눌 수 있겠다. 그 가운데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특수본풀이라고 하는 서사무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상대적으로 서정무가, 교술무가, 희곡무가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적었다. 서사무가도 마찬가지로지만 아무래도 다른 갈래의 무가들은 무속의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풀이 역시 서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앞뒤로 교술적인 내용도 함께 붙게 마련이다. 제주도에 서사무가의 종류와 수량이 많으니 1차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는 다른 갈래의 무가에도 접근해야 한다.

42) Ryu, Sung, 2016,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Myth 'Segyeong Bonpuri.’”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둘째, 서사무가일 경우 다양한 유형의 본풀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일반신본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서사성이 풍부한 편이고 비교적 해당 의례와 짝을 맞추어 보는 것도 상대적으로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 일반신본풀이 가운데서도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본풀이도 있다. 앞으로는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특수본풀이 등 다양한 유형의 본풀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이들 유형에 대한 접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신당과 당굿, 조상굿 등 관련 요소의 이해가 만만치 않다. 특수본풀이라는 명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운율이 있는 구비서사시적인 면모에 대한 인식도 요구된다.

셋째, 무가와 무속의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무가는 단순한 말이나 이야기가 아니다. 무가는 무속의례와 분리할 수 없다. 무가의 내용들은 의례의 제차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무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례의 양상과 관련하여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서사내용을 위주로 하는 텍스트(text) 연구에서 더 나아가 신, 심방(무당), 신앙민, 의례 등의 콘텍스트(context)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무가 연구와 무속 연구가 서로 상보적인 관계임을 알려준다. 하물며 무가는 집단적인 구비전승물이니 그 집단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함의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다.

넷째, 여러 형태의 비교연구가 요청된다. 내부적으로는 갈래별, 유형별 상호관계를 다루는 비교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서사무가와 희곡무가가 대응되는 사례도 여럿이다.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의 형성, 변이, 상호 영향관계에 대한 비교연구도 가능하다. 한국 본토의 유사 무가와 고소설 등과 비교연구도 있다. 시야를 밖으로 돌려 오키나와, 아이누, 만주 등의 동아시아와 세계의 무가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까지 나아가야 한다. 비교연구를 통하여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다섯째,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좋은 무가 자료집이 꾸준히 발간되어야 한다. 무가 채록이 1차 작업이겠고, 이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전사하여 묶어내는 것이 2차 작업이다. 가능한 대로 무가와 의례가 함께 어우러지는 현장자료이면 좋을 것이다. 구송하는 심방과 의례 현장의 상황, 신앙민들의 태도 등 관련 정보가 풍부하면 더욱 좋겠다. 사실 이 과제는 앞선 과제들을 위한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인내와 헌신을 요구한다. 개별 연구자가 감당하기에 버겁다. 연구 자료의 마련에 지나친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게 만들어 정작 한 단계 높은 연구로 나아가기 어렵게 만든다. 학계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배려가 필요한 일이다.

여섯째, 무가 연구의 진정한 과제는 어쩌면 연구자의 부족일지도 모른다.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부 과정에서부터 무가 연구로 견인하는 동기 부여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 전국 대학에 구비문학을 전공으로 담당할 교수인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에서도 깊이 지도하기 힘든 사정이다. 어렵사리 후속세대가 전공하였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는 더욱 어렵다. 연구자 집단이 한정되고 후속세대가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성과가 풍부해지지 못한다. 제주도 무가 연구의 특성상 지역 출신 연구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러모로 연구기반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Ⅲ. 제주도 무속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주도 무속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다룰 차례다. 무속 연구 역시 일제강점기 때인 1930년대 즈음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해

방 이후 본격적인 자료수집과 연구가 시작된 점은 무가 연구와 같다. 다만 무속 분야는 무가와 달리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자의 폭이 넓지 않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무속의례에 대한 현장조사가 쉽지 않다는 이유도 크다. 게다가 어렵사리 현장조사를 하였다 고 해도 제주의 방언과 풍속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은 더욱 힘들다. 제주도 출신 연구자들에게도 버거운 일인데 하물며 도외 출신 연구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갈수록 무속 연구의 폭을 넓히는 데 어려움이 더해진다. 역시 그동안 여러 난관을 뚫고 이루어진 무속 연구의 성과에 대해 대표적인 연구자의 저작과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과제를 점검하기로 한다.

1. 무속 연구의 성과

해방 이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루어진 성과를 역시 먼저 간단히 언급한다. 손진태가 1927년에 펴낸 『조선상고문화의 연구 : 조선고대의 종교학적·토속학적 연구』에서 제주도 심방의 명칭과 샤먼적 특성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⁴³⁾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1932년에 『朝鮮の巫覡』을 발간하여 한국의 무당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⁴⁴⁾ 제주도와 관련해서는 단순하게나마 무격의 명칭, 초공본풀이, 무구를 다루었다. 아카마쓰 지쵸(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는 1937~1938년에 『朝鮮巫俗의 研究』(上/下)를 함께 펴내었다.⁴⁵⁾ 하권에서 아키바는 무조전설, 무의 호칭과 종류, 입무과정 등의 무속 연구를 정리하였다. 한편 무업종사자에 대한 통계현

43) 손진태 저/최광식 역, 2002, 『조선상고문화의 연구 : 조선고대의 종교학적·토속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물관.

44) 村山智順, 1932, 『朝鮮の巫覡』, 朝鮮總督府(1972년에 學文閣에서 영인본 발행).

45) 赤松智城·秋葉隆 지음/沈雨晟 옮김, 1991, 『朝鮮巫俗의 研究』(上/下), 동문선.

황 파악도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의 연구는 일본인 학자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단편적인 수준이기는 해도 향후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해방 뒤에는 한국인 학자들이 무속 연구를 전개하였다. 1947년에 석주명이 『濟州島方言集』에서 심방이라는 어휘를 수록하면서 관심을 보인 바는 있다.⁴⁶⁾ 본격적인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현장접근을 하여 구체적인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제주도 무속 연구를 이끈 선구자들도 무가처럼 역시 진성기, 장주근, 현용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무가와 무속이 서로 밀접하기에 어느 한쪽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한쪽에도 관심이 확대되기에 이른다.

진성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현장조사에 뛰어들었다. 무가와 관련하여 『南國의 巫歌』를 남겼지만, 무속과 관련해서도 1966년에 『南國의 巫俗』을 펴내었다.⁴⁷⁾ 심방, 신당, 당신, 뱀신앙 등에 주목하였다. 그에게 있어 『南國의 巫歌』와 『南國의 巫俗』은 각각 자료집과 연구서로써 짝을 이루는 저작이다. 그런데 전자가 당대의 역작이라면 후자의 성과는 다소 단출한 편이다. 학문적인 관점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당시 경신회(敬信會)의 전도심방 명단을 입수하여 『南國의 巫歌』 재판본인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 수록하여 제주도내 심방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하였다.⁴⁸⁾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의 후반부에는 ‘제6부 개설편’이라고 하여 제주도 무속의 이모저모에 대하여 서술해 놓기도 하였다.⁴⁹⁾ 진

46) 석주명, 2008, 『濟州島方言集』, 제주문화.

47) 『南國의 巫俗』은 1966년(제주민속연구소)에 나왔다가 1987년(『南國의 巫俗 : 濟州島巫俗論考』, 형설출판사)과 1993년(『濟州島巫俗論考 : 南國의 巫俗』, 제주민속연구소)에 다시 발행되었다.

48) 진성기, 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843~848쪽.

49) 진성기, 위의 책, 717~827쪽.

성기의 성과는 자료수집에서 두드러진다. 더불어 1964년에 이미 제주민속박물관을 설립하여 무속 관련 유물의 보존에 힘쓴 점도 기억할 만하다.

장주근도 1950년대 후반부터 제주도 무속에 주목하여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자료수집을 하고 연구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71년에 문화재관리국의 의뢰를 받아 제주도 무속을 정리하였고, 이때 원고는 1990년에 『濟州島 巫俗』으로 출간되었다.⁵⁰⁾ 이후 2001년에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라는 보다 확장된 결과물을 내놓았다.⁵¹⁾ 여기서 심방의 명칭과 종류, 통계, 입무와 계승, 단골관계와 경제생활, 무구와 무복 등과 더불어 당의 내용상, 외형상 종류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또한 제주도 풍어제와 영등굿을 정리한 바도 있다.⁵²⁾ 한편 「제주도 심방의 3명두」라는 논문에서는 멩두의 용도, 초공본풀이를 다루었는데, 청동기기(靑銅儀器)와 단군신화의 천부인(天符印)과 연관한 해석을 시도한 점이 주목된다.⁵³⁾ 전체적으로 장주근은 무가 연구에 보다 집중한 편이다. 제주도 무속과 관련해서는 종합적 연구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현용준도 다른 이들처럼 1950년대 후반부터 무속에 관심을 가졌다. 앞서 무가에서 말하였듯이 부인의 출산과 육아과정에서 촉발된 무가 연구가 더욱 범위를 넓혀 전반적인 무속 연구까지 나아가는 큰 전환을 이루어냈다. 본풀이를 통하여 무속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다. 그 뒤로 역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약 30여 년 동안 무속

50)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0, 『濟州島 巫俗』,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51) 장주근, 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52) 문화재관리국, 198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풍어제, 농악, 민요론), 문화재관리국.; 글/장주근·이보형, 사진/김수남, 1983, 『제주도 영등굿』, 열화당.

53) 장주근, 1998, 「제주도 심방의 3명두」, 『한국의 향토신앙』, 을유문화사.

연구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는 안사인 심방을 주요 체보자로 하여 제주도 무속의 전체적인 양상을 정리하였다. 장주근-고대중 조합처럼 현용준-안사인 조합이 탄생한 셈이다. 현용준은 제주도 무속에서 무신, 무격(심방), 무의, 무구, 마을신앙, 비교연구 등에 대하여 고루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여기서도 현용준의 무속 연구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⁵⁴⁾

1960년대 현용준의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당시 문화재관리국의 조사와 관련 있는 성과가 많았다는 점이다. 즉 1965년의 『濟州島 무당굿놀이』, 1966년의 『濟州島 토산당굿』, 1969년의 『濟州島 部落祭堂』 등이다.⁵⁵⁾ 이는 당시 전국적으로 무형문화재조사가 시작되었던 사정에 따른 결과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자신의 연구를 심화시켰다. 가장 큰 계기는 나이 40세에 일본의 동경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본격적으로 무속을 연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시기에 문화인류학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면서 제주도 무속뿐만 아니라 이를 이론화하기 위해 주변 민족의 무속과 비교연구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제주도의 기층문화 성격을 밝히는 데도 관심을 가졌다. 1970년대 현용준의 연구활동에서 일본 동경 유학과 더불어 특기할 점은 제주도 무속지를 간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다.

현용준은 1980년대에 이르러 무속 연구의 절정을 이루었다. 그는 여러 간행물을 연속적으로 발간하면서 제주도 무속의 전체적인 면모

54)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 연구에 대해서는 필자가 근래에 집필하였던 글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여기에 발췌·요약하여 옮긴다. 강소전, 2017,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 연구 전개와 내용」, 『현용준 선생의 학문세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89~93쪽 참고.

55) 현용준, 1965, 『濟州島 무당굿놀이』, 文化財管理局. ; 현용준, 1966, 『濟州島 토산당굿』, 文化財管理局. ; 현용준, 1969, 『濟州島 部落祭堂』, 『部落祭堂』, 文化財管理局.

를 밝히고 연구를 집대성하고자 하였다. 1970~1980년대는 한국 본토에서도 최길성, 유동식, 김태곤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무속 연구서와 자료집이 발간되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그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제주도 지역에서는 무속연구서와 자료집 발간을 온전히 현용준이 감당한 셈이었다. 현용준의 다양한 연구 결과는 그의 몇몇 대표 저작에서 집대성되었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濟州島巫俗資料事典』은 본풀이를 포함하여 제주도 무속의례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루어 수록한 대표적 자료집이다.⁵⁶⁾ 한국에서 지역 무속지(巫俗誌)의 전형을 이룬 사례라 할만하다. 이 저작은 큰굿(중합제), 작은굿·비뉘(단독제)을 비롯하여 당굿 사례와 당본풀이, 조상본풀이까지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모두 망라하였다. 치밀하고 꼼꼼한 주석과 사항해설, 조사 및 어미 일람표, 항목과 어휘색인 작업까지 이루어져 더욱 접근이 용이하다. 따라서 현용준을 포함하여 이후 학문연구세대에게 중요한 길잡이를 제공한 중요 문헌이다.

『濟州島 巫俗 研究』는 1985년에 『濟州島巫俗の研究』(第一書房, 東京)로 펴낸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을 한국어로 다시 출판한 저작이다.⁵⁷⁾ 『濟州島巫俗資料事典』과 한 쌍을 이루는 학술 연구서이다. 심방의 직능, 성무과정, 신령, 무의의 양태(형식, 테크닉), 무장과 무구 등으로 나누어 심도 있는 고찰을 하였다. 특히 한국 본토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만주, 일본, 오키나와(沖繩) 등의 사례까지 다루는 비교연구도 진행하였다. 제주도 무속의 대부분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고 현재까지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문헌이 되었다.

『濟州島 巫俗과 그 周邊』은 『濟州島巫俗研究』에서 다룬 내용들을

56) 현용준, 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57) 현용준, 1986, 『濟州島 巫俗 研究』, 집문당.

제외하고 그가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썼던 여러 글들을 한데 모아놓은 저작이다.⁵⁸⁾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1부는 제주도 곳의 다양한 양상을 담았고, 2부는 무속과 관련한 민속현상을 다루었다. 1부는 무당굿 개관, 영등굿, 칠머리당굿, 영감놀이, 무혼굿, 신굿, 어민신앙, 기메, 질병관을 수록하였다. 2부는 약마희(躍馬戲), 화반(花盤), 문제(門祭), 우석목(돌하르방), 무가 속의 제주방언, 상제(喪祭), 뱀신앙을 비롯하여 제주도민의 신앙체계, 민속문화 보존, 기층문화 등에 대한 글들을 수록하였다. 발표시기가 매우 일렀던 논문들도 수록하였기 때문에 후학들이 이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준 이점이 있다.

한편 『민속사진집 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⁵⁹⁾ 사진 찍는 일이 수월치 않았던 시절에 그가 발품을 팔고 돌아다니며 수집한 옛 모습들이 고스란히 학술적으로 소중한 기록사진이 되었다. 이 가운데 무속 관련 사진들도 있는데 가신(家神), 신당, 무악기와 무점구, 기메, 무신도와 무신상, 마을굿, 칠머리당굿, 잠수굿, 연신맞이, 성주풀이, 불도맞이, 시왕맞이, 토산본향풀이, 세경놀이, 전상놀이, 영감놀이, 비넛, 신굿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열화당에서 펴낸 『한국의 굿』 시리즈 사진집에서 제주도의 무혼굿, 신굿을 발간하는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때로는 사진 한 장이 매우 귀한 학술적 정보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⁶⁰⁾

이밖에 그는 노년에도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를 펴내어 마지막까지 자신의 학문적 열정을 후학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⁶¹⁾ 제주도 신화를 중심으로 무속에 대해서도 자신이 미처 해명하지 못하였거나

58) 현용준, 2001, 『濟州島 巫俗과 그 周邊』, 집문당.

59) 현용준, 2004, 『민속사진집 靈』, 각.

60) 글/현용준·이부영, 사진/김수남, 1985, 『제주도 무혼굿』, 열화당. 글/현용준·이남덕, 사진/김수남, 1989, 『제주도 신굿』, 열화당.

61) 현용준, 2005,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관심을 두지 못한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가 직접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고는 조금이라도 학문적 실마리를 남기려고 노력한 셈이다. 이 저작은 신화(본풀이)를 중심으로 여러 의문점을 언급하였지만 그 가운데는 제주곳의 체계, 맹두, 칠성, 당신앙, 일월조상 등 무속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현용준이 제주도 무속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다진 사실은 두말할 필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미비한 점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크게 심방, 신령, 무의, 무장과 무구 등으로 나누어 전개하였는데 각 항목마다 그가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거나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남긴 과제도 만만치 않았다.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몇몇 후학들이 현용준의 뒤를 이어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용준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에 견주어 현장조사의 여건이 점차 개선되어 가는 이점도 있다. 현용준 이후 무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들은 대표적으로 문무병, 김현선, 강정식, 강소전 등이 있다.⁶²⁾ 이들은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무속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면모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문무병은 현용준 이후부터 현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그는 「제주도 당신앙 연구」라는 박사학위논문을 통하여 산신, 농경·치병신, 사신(蛇神), 도깨비, 해신 등 다양한 당신앙의 양상을 살폈다.⁶³⁾ 많은 도내의 신당을 두루 현장답사하여 기존에 당신본풀이에 치중하던 관심을 본풀이뿐만 아니라 당신앙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제주도 무조신화(巫祖神話)와 신곳」에서는 명두물림, 초공본풀이, 신곳의

62) 문무병, 강정식, 강소전은 제주 출신 연구자이다. 도외 출신 연구자들 가운데는 사실상 김현선만이 꾸준히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 방언과 풍속, 지리적 거리 등이 도외 연구자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63) 문무병, 1993,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 논문은 나중에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민속원, 2008)로 출간되었다.

상관성을 다루었다.⁶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니 논문에 실린 자료가 소중하다.

그는 제주도 무속의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였다. 2000년대 들어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민속극』, 『제주도의 굿춤』,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제주굿판의 아름다움 굿의 기메·전지』, 『제주큰굿』, 『제주큰굿 보고서 : 2011년 성읍리 마방집 정공철 심방 초역례』 등을 작업하였다.⁶⁵⁾ 이 가운데 큰굿과 관련한 자료가 3개나 있어 주목된다. 시기적으로도 1986년부터 2011년까지 25년 동안의 자료여서 관심이 간다. 다만 전사 자료집인 경우 전사의 치밀함이 부족하고 부분적으로 누락된 내용들이 여럿 있어 아쉽다. 이밖에도 민속극, 굿춤, 기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자료집을 남겨 후학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헌선도 제주도 무속을 오랫동안 관찰한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그는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제주굿의 이론, 신굿(입무의례), 무구 등에 다양한 관심을 보였다. 국내·외의 사례와 견주는 비교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국내·외 각 지역의 무속에 두루 정통하므로 연구의 폭이 매우 넓고 현장자료도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 참고할 내용이 많다. 2000년대 들어서서 활발하게 여러 논문을 발표하였다. 원리를 밝히고 이론을 세우는 데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의 연구결과는 「제주도 巫具 ‘삼맹두’와 ‘울쇠’의 전승적 연구」,

64) 문무병, 1999, 「제주도 무조신화(巫祖神話)와 신굿」, 『비교문화연구』 제5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65)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 문무병, 2003, 『제주민속극』, 각. ; 문무병, 2005, 『제주도의 굿춤』, 각. ; 문무병, 2005,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황금알. ; 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주굿판의 아름다움 굿의 기메·전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10, 『제주큰굿』, 제주특별자치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 문무병, 2011, 『제주큰굿 보고서 : 2011년 성읍리 마방집 정공철 심방 초역례』, 제주방송총국.

「제주도 무구 ‘울쇠’의 성격과 의의」, 「무속과 정치 : 쇠걸립, 쇠내림, 사제계승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굿의 구조와 원리」, 「제주도와 충승의 내림굿과 본풀이 비교연구」, 「제주도 심방의 신굿과 아미미오지마 유타 성무의례의 비교 연구」 등이 있다.⁶⁶⁾ 무구의 전승과 신굿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가운데 「제주도 굿의 구조와 원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제주굿의 특수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보편성을 찾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열거 실증주의’ 혹은 ‘민속학적 실증주의’를 비판하고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강정식은 무가 연구로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 무속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주도 출신 연구자로서 무가와 무속 분야의 연구를 두루 이끌고 있다. 그는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당신앙 연구」, 「제주도 당굿과 경제」, 「당굿의 세시의례적 성격」 등 주로 당굿을 중심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⁶⁷⁾ 여기에 무속 자료의 정리도 꾸준히 하고 있다. 『동북리 본향당굿』, 『제주도 성주풀이』, 『제주도 수

66) 김현선, 2002, 「제주도 巫具 ‘삼맹두’와 ‘울쇠’의 전승적 연구」, 『생활문화연구』 제6집, 국립민속박물관. ; 김현선, 2003, 「제주도 무구 ‘울쇠’의 성격과 의의」, 『민속학연구』 제12집, 국립민속박물관. ; 김현선, 2004, 「무속과 정치 : 쇠걸립, 쇠내림, 사제계승권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민속학』 제26집, 비교민속학회. ; 김현선, 2007, 「제주도 굿의 구조와 원리」,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 김현선, 2008, 「제주도와 충승의 내림굿과 본풀이 비교연구」, 『비교민속학』 제35집, 비교민속학회. ; 김현선, 2015, 「제주도 심방의 신굿과 아미미오지마 유타 성무의례의 비교 연구」, 『실천민속학연구』 제26집, 실천민속학회.

67) 강정식, 2003, 「서귀포시 동부지역의 당신앙 연구」, 『한국무속학』 제6집, 한국무속학회. ; 강정식, 2004, 「제주도 당굿과 경제」, 『비교민속학』 제27집, 비교민속학회. ; 강정식, 2006, 「제주도의 해양신앙」, 『도서문화』 제27집,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 강정식, 2007, 「당굿의 세시의례적 성격」,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 강정식, 2015, 「김인회 촬영 건입동 불도맞이, 동김녕 잠수굿 고찰」, 『한국무속학』 제30집, 한국무속학회.

산본향당 신과세제』 등이 그 예이다.⁶⁸⁾ 이는 지역 출신 연구자이기
에 더욱 가능한 일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러기에 깊어져야 하
는 무거운 숙명이기도 하다.

그의 연구결과 가운데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를 중요하게 다루
어야 마땅하다.⁶⁹⁾ 이 책은 제주 무속 연구의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현용준의 『濟州島巫俗資料事典』을 재검토했던 결과이기 때문이다. 『濟
州島巫俗資料事典』의 장점은 인정하면서 미비한 점이나 오류가 드러
난 내용에 대해 꼼꼼한 점검과 확인을 시도하였다.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에서는 제주굿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제차(祭次)의 의미,
내용, 그 짜임새를 중시하였다. 필자의 최근 현장조사 자료까지 포함
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와 견주어 볼 수 있다.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는 『濟州島巫俗資料事典』을 극복하고 무속 연구의 전환을 이
루었다.

강소전도 제주 출신 연구자로서 2000년대 들어 현장조사를 지속
적으로 전개하면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제주도 잠수굿 연구 :
제주도 북제주군 김녕리 동김녕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도
굿의 무구(巫具) ‘기메’에 대한 고찰 :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기능보유자 김윤수 심방의 기메 제작사례를 중심
으로」, 「제주도 굿의 ‘공시풀이’ 고찰 : 이용옥 심방의 사례를 중심
으로」, 「제주도 심방의 멥두 연구 : 기원, 전승, 의례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⁷⁰⁾ 잠수굿, 공시풀이, 멥두 등은 사실 그동안 연구가 거의 이

68) 강정식, 2011, 『동북리 본향당굿』,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제주도 성주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
문화재연구소, 2013, 『제주도 수산본향당 신과세제』, 국립문화재연구
소.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제주도 성주풀이』와 『제주도 수산본향당 신과
세제』는 이두현 기증 자료를 강정식이 전사하여 엮은 것이다.

69) 강정식, 2015,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70) 강소전, 2005, 「제주도 잠수굿 연구 : 제주도 북제주군 김녕리 동김녕

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이다. 기메도 연구가 충분치 않았다. 그러다 보니 무속 연구의 빈틈을 거둬 메우게 되었다. 그의 연구 가운데는 맹두를 다룬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맹두에 대한 이해는 곧 제주도 심방과 무속의 이해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김현선, 강정식, 강소전 등이 함께 작업한 결과도 있다. 강정식·강소전·송정희의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강정식과 강소전의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 :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김현선·신연우·강정식·강소전의 『제주도 큰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굿』 등이다.⁷¹⁾ 첫째는 굿 자료집이다. 제주도 굿의 전사(轉寫)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전환이 되었다. 둘째는 무구 보고서이다. 6명의 심방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구를 보고한 첫 결과물이다. 셋째는 큰심방 이중춘을 다각도로 조명한 결과로 이런 형태의 저작 역시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고광민, 김은희, 전주희도 제주도 무속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고광민은 무속 연구에서 나중에 생업민속으로 방향을 바꾸었지만 무속 연구사에서 빠뜨릴 수 없다. 「행정권과 신앙권」과 『제주도 추는굿』은 주목할 만하다.⁷²⁾ 또한 무속 관련 조사 자료를 국립문화재연구소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소전, 2006, 「제주도 굿의 무구(巫具) ‘기메’에 대한 고찰 :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기능보유자 김윤수 심방의 기메 제작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3집, 한국무속학회. ; 강소전, 2007, 「제주도 굿의 ‘공시풀이’ 고찰 : 이용옥 심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 강소전, 2012, 「제주도 심방의 맹두 연구 : 기원, 전승, 의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소전, 2014, 『제주의 무구』, 제주대학교박물관. 한편 한국의 무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최진아가 제주도 무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71) 강정식·강소전·송정희, 2008,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 :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민속원. ; 김현선·신연우·강정식·강소전, 2013, 『제주도 큰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굿』, 민속원.

(현 국립무형유산원)에 기증하였기 때문에 향후 발간작업을 앞두고 있다. 김은희는 제주도 굿놀이와 관련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제주도 굿놀이의 특징 연구 : <불도맞이>의 굿놀이 연행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도 본풀이와 놀이의 상관성 : 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양상과 유형을 중심으로」를 들 수 있다.⁷³⁾ 도외 출신 가운데 현장조사를 다수 경험한 편이며 제주굿에 대한 이해가 높다. 전주희도 역시 도외 출신으로 최근 제주 무기뿐만 아니라 무속에도 관심이 많다. 「제주도 무구(巫具) ‘삼맹두’를 통해 본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 「<내왓당무신도>의 도상성(Iconicity)과 제주 무속의 생태성」등의 연구가 있다.⁷⁴⁾

한편 황나영과 이용식은 제주도 무속음악에 관심을 보였다. 황나영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음악적 구성과 특징」을, 이용식은 「제주도 연물의 남방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도 『제주도의 무속음악』을 펴내었다.⁷⁵⁾ 무의가 종합의레이다 보니 무속음악에 대한 고찰도 필요한 일이다. 장애심과 강소전이 무속제물(굿음식)을 정리한 바 있다. 장애심은 「제주도

72) 고광민, 1989, 「행정권과 신앙권」, 『제주도연구』 제6집, 제주도연구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제주도 추는굿』, 도서출판 피아.

73) 김은희, 2007, 「제주도 굿놀이의 특징 연구 : <불도맞이>의 굿놀이 연행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 김은희, 2010, 「제주도 본풀이와 놀이의 상관성 : 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양상과 유형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3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74) 전주희, 2011, 「제주도 무구(巫具) ‘삼맹두’를 통해 본 무조신과 심방의 의미」, 『민속학연구』 제29호, 국립민속박물관. ; 전주희, 2013, 「<내왓당무신도>의 도상성(Iconicity)과 제주 무속의 생태성」, 『한국무속학』 제26집, 한국무속학회. 한편 무신도와 관련해서는 김유정의 『제주의 무신도』(파피루스, 2000)도 참고할 수 있겠다.

75) 황나영, 2011,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의 음악적 구성과 특징」,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식, 2012, 「제주도 연물의 남방문화적 요소에 대한 고찰」, 『한국무속학』 제24집, 한국무속학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제주도의 무속음악』, 국립문화재연구소.

무속제 제물의 민속학적 연구」를, 강소진은 「제주 동김녕마을 잠수굿」에서 굿음식을 다루었다.⁷⁶⁾ 김기형의 최근 연구결과인 「서귀포 심방 박봉춘의 家系와 무업 활동」도 심방연구 차원에서 주목된다.⁷⁷⁾ 더불어 역시 최근에 사진작가 김기삼이 『동북마을 본향당굿』을 필두로 그동안 작업하였던 무속 관련 사진을 일련의 연속물로 발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 사진자료집으로 주목할 만하다.⁷⁸⁾ 또한 근래 들어 제주대학교에서 입춘굿, 멩감제, 송당본향당굿, 석살림 등을 주제로 하여 석사학위논문 몇 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⁷⁹⁾

이밖에 제주도 무속과 관련하여 몇몇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의 보고서가 대부분인데, 무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당에 대해서는 『제주신당의 내용 및 현황조사 보고서』,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Ⅱ),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해설집』, 『서귀포시지』, 『제주신당조사 : 제주시권』, 『제주신당조사 : 서귀포시권』 등을 참고할 수 있다.⁸⁰⁾ 신당은 현장조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76) 장애심, 1977, 「제주도 무속제 제물의 민속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제주 동김녕마을의 잠수굿」, 『무, 굿과 음식』, 국립문화재연구소.

77) 김기형, 2015, 「서귀포 심방 박봉춘의 家系와 무업 활동」, 『한국무속학』 제31집, 한국무속학회.

78) 김기삼 사진, 김승연 글, 2016, 『동북마을 본향당굿』, 각.

79) 한진오, 2007,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원리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순희, 2010, 「제주도 와산리 멩감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연, 2011, 「제주도 송당마을 본향당의 굿과 단골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정희, 2015, 「제주도 굿 제차 중 <석살림>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0) 서울대학교 제주학우회, 1973, 『제주신당의 내용 및 현황조사 보고서』, 서울대학교 제주학우회. ;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4,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編)』,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 남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남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Ⅱ), 북제

이들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제주의 민속Ⅴ : 민간신앙, 사회구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의 가정신앙 : 제주도편』, KBS제주방송총국의 제주큰굿(2011년 정공철 심방 신굿/표선면 성읍리) 영상(DVD)과 기록사진집 등도 무속 연구에 도움을 주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⁸¹⁾

2. 무속 연구의 과제

제주도 무속은 복잡한 체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제주 방언 습득이 매우 힘들고 정교하게 짜인 수많은 제차들이 어우러져 이해하지도 못한 채 그 안에서 결국 헤매고 만다. 나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숲을 잊어버리고, 숲을 생각하다 보면 개별 나무들의 속성에 대한 지식이 더욱 필요해진다. 문헌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경험도 고루 갖추어야 한다. 게다가 제주도라는 지역 자체가 한국 본토에 견주어 다소 독특한 민속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부지불식간에 특수성을 주장하고 싶어진다. 무속의 종합적인 면모를 가능한 대로 알아야 바른 시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무속 연구의 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

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1998, 『제주시문화유적분포지도해설집』,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 서귀포시, 2001, 『서귀포시지』,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8, 『제주신당조사 : 제주시권』,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9, 『제주신당조사 : 서귀포시권』,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신당의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함께 활용하면 좋다.

81) 제주도, 1998, 『제주의 민속Ⅴ : 민간신앙, 사회구조』, 제주도.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한국의 가정신앙 : 제주도편』, 국립문화재연구소. ; KBS제주방송총국, 2011, <제주큰굿(2011년 정공철 심방 신굿/성읍리) 영상(DVD)과 기록사진집>.

첫째, 무속의례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굿과 비념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생각해야 한다. 집굿, 당굿, 생업공동체굿의 양상은 어떠한지도 궁금하다. 단골집굿과 심방집굿의 양상도 마찬가지다. 상호 교섭관계도 고민 대상이다. 큰굿이 종합의례이기는 하니 큰굿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자료만 중시한다고 연구가 진척되지 않는다. 또한 전통문화가 비교적 살아 있었던 과거의 자료만 소중하다고 여겨 현재까지 변화 양상을 무시하거나 놓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다양한 무속의례를 고루 접하고 그 의미를 살피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둘째, 무속사제자인 심방 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무속은 무당이라는 사제자의 존재가 있어 신과 신앙민을 잇기 때문에 다른 민속문화와 구별된다. 심방은 제주도 무속의 근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심방과 관련하여 특히 멩두, 공시풀이, 신굿, 당주제 등을 주목해야 한다. 멩두는 심방의 조상이자 핵심무구로 제주 무속의 역사를 말해주는 통로이기도 하다. 여기에 무업 집안(가문)의 양상, 무업 집단(공동체)의 형성과 유지, 당멘심방과 마을공동체의 유대, 산파이자 여무이기도 한 삼승할망 등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전통적인 심방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재 무속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셋째, 신앙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신앙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속의례가 행해진다. 마땅히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집굿에서 본주(기주)가 행하는 정기적, 비정기적 의례의 양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신앙민은 심방과 어떻게 단골 관계를 유지하는가, 당굿에서 말하는 상단골·중단골·하단골의 형성은 어떠한지, 신앙민과 신당의 가지가름 혹은 중산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을공동체와 생업공동체의 신앙민 특징은 어떠한지, 신앙민의 의례를 대하는 태도와 의례에서 행하는 특별한 행동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있는지 다각도의 검토

가 필요하다.

넷째, 무악(巫樂), 무무(巫舞), 무구(巫具) 연구 등도 활성화해야 한다. 제주도 무속 연구에서 특히 무악과 무무는 근래에 몇몇 연구자들이 힘쓰고 있지만 아직 비어 있는 부분이 많다. 제주도 무속 의례가 사설이 많고 서사무가가 다양하다 보니 그동안 무악과 무무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관련 분야 연구자가 드문 점도 있었다. 무속의례가 종합예술적 면모를 보이므로 무악과 무무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무구는 최근 연구가 행해지고 있어 다행인 편이다.

그 다음은 앞서 무가 연구의 과제에서 언급하였던 내용을 여기서도 거듭 반복하게 되었다. 따라서 간단히 다루기로 한다. 먼저 무속과 무가의 상호관계를 살펴야 한다. 무가와 무속의례의 상호관련성, 이른바 ‘풀이, 맞이, 놀이’라고 하는 굿의 원리, 젓드리와 굿드리 등까지 아우르면 좋겠다. 비교연구도 역시 중요하다. 무속의 근원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해당 주제마다 안팎으로 견주는 연구가 있어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국내외를 포괄한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면모를 확인하고 원리와 이론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 또한 좋은 무속지의 발간이 있어야 한다. 입체적이고 완성도 있는 무속지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무속지에는 무속의례 전사 자료집과 더불어 사진과 영상 같은 시각 자료까지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무속의 해당 주제 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기존 무속 전사 자료집의 단점을 보완한 결과물들이 몇몇 나오고 있기는 하다.

무가 연구에서도 이미 말하였지만 역시 무속 연구에서도 최후의 과제는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속 연구자에게는 구비문학뿐만 아니라 민속학적 접근도 요구된다.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연구능력을 갖추려면 오랜 기간이 걸린다. 무속 분야는 무가 분야보다 더 연구자 양성이 쉽지 않다. 학문 후속세대 양성은 갈수록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제도적 지원이 갖

추여져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무속 자료를 수집하여 발간하는 일도 벅찬 형편이다. 무속 연구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IV. 맺음말

이 글은 해방 후 지난 70년간 이루어진 제주도 무가·무속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다루었다. 제주도(濟州島)라는 지역적 범위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학문 분야의 주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중심적인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본 것이다. 앞서 머리말에서 무가와 무속으로 나누고 연구자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마냥 적절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이 각 분야 연구사를 돌아보는 것과 같고, 학문 선구자와 학문 후속세대가 어떻게 학문적 고민을 이어갔는지 알아보는 것이어서 나름대로 선택한 방법이었다. 한편 지면 여건상 모든 연구자와 그 연구 성과를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제주도 무가와 무속이 핵심적인 연구주제로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난 성과를 위주로 정리하였다.

제주도 무가와 무속 연구의 성과는 시기적으로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부터 있었다. 이때는 무라야마 지준, 아카마쓰 지쥬, 아키바 다카시 등 일본인 학자들이 중심이었다. 한국인 학자들은 해방 후 사실상 196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무가와 무속 조사의 결과물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진성기, 장주근, 현용준이라는 걸출한 선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현용준은 무가와 무속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큰 업적을 이루었다. 현용준 이후에는 고

광민, 이수자, 문무병, 김현선, 강정식, 허남춘, 권태효, 강진옥, 정진희, 강소전, 김은희 등이 있다. 후속세대 가운데는 문무병, 김현선, 강정식의 성과를 주목할 만하다. 제주도 출신 연구자와 도외 출신 연구자들이 나뉘어 고루 섞인 면모도 있다. 그러면서 무가와 무속 분야 특성상 지역 출신 연구자들의 학문적 대(代)가 현재까지 이어진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제주 방언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무가와 무속 연구의 성과가 있었다면 당연히 과제도 있게 마련이다. 무가 연구에서는 갈래별, 유형별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속 연구에서는 무속의례의 다양한 양상, 심방, 신앙민, 무악, 무무, 무구 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어느 한쪽 주제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인 양상을 다루어야 각각 그 진면목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무가와 무속 분야에 공통되는 과제도 있다. 즉 무가와 무속을 분리할 수 없으니 그 상호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다양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일반적인 원리와 이론을 수립할 수 있는 큰 연구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입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무가-무속 자료집이 지속적으로 발간되어야 한다.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 역시 큰 과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시나브로 차세대 연구의 지속이 위협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대가 흐르면서 학계에 새롭게 요청되는 과제도 생기고 있다. 무가와 무속이라는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음악, 춤, 놀이 등의 공연예술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고 그 교육적 활용에 대한 고민도 늘어난다. 전통문화를 현재적으로 되살리는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욕구도 커져 간다. 제주도 무가와 무속이 지닌 전통문화적인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온당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평가에 인색한 측면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오해에 대한 학문적 논의도 더욱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제주도 무가와 무속 연구는 이른 시기부터 ‘제주학’이라는 학문을 견인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학문 선구자들의 성과는 제주학의 기초를 다지는 밑바탕이 되었다. 그 뒤를 이은 학문 후속세대들이 선학들의 연구를 보완하면서 제주학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더불어 동아시아와 세계로 나아가는 고민을 하기에 이르렀다. 서로 노력하여 연구의 새 지평이 열리고 제주학 역시 큰 전환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지면 조건상 주요 저작들을 제시한다. 다른 문헌들은 각주를 참고하기 바란다.

강소진, 2012, 「제주도 심방의 맹두 연구: 기원, 전승, 의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7,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 연구 전개와 내용」, 『현용준 선생의 학문세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강정식, 2002,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5,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_____, 2017, 「현용준의 신화 연구 성과와 의의」, 『현용준 선생의 학문세계』, 제주특별자치도·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강정식·강소진·송정희, 2008,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제주도의 무속음악』, 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06, 『제주도 추는굿』, 도서출판 피아.

_____, 2008,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무구: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민속원.

_____, 2013, 『제주도 성주풀이』, 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13, 『제주도 수산분향당 신과세제』, 국립문화재연구소.

김현선, 2007, 「제주도 굿의 구조와 원리」,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김현선·신연우·강정식·강소진, 2013, 『제주도 큰심방 이증춘의 삶과 제주도 큰굿』, 민속원.

김현선·현용준·강정식, 2006,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문무병, 1993,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8,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_____, 2003, 『제주민속극』, 각.

_____, 2005, 『바람의 축제 칠머리당 영등굿』, 황금알.

- _____, 2011, 『제주큰굿 보고서: 2011년 성읍리 마방집 정공철 심방 초역례』, 제주방송총국.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0, 『濟州島 巫俗』,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 이수자, 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주근, 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 _____, 2007, 「제주도 무속 연구의 회고」, 『한국무속학』 제14집, 한국무속학회.
- 赤松智城·秋葉隆 지음, 沈雨晟 옮김, 1991, 『朝鮮巫俗의 研究』(上/下), 동문선.
-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제주도큰굿자료』,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10, 『제주큰굿』, 제주도특별자치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 진성기, 1991,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 _____, 1993, 『濟州島巫俗論考: 南國의 巫俗』, 제주민속연구소.
- 村山智順, 1932, 『朝鮮의 巫覡』, 朝鮮總督府(1972년에 學文閣에서 영인본 발행).
- 허남춘, 2011,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현용준, 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신구문화사.
- _____, 1986, 『濟州島 巫俗 研究』, 집문당.
- _____, 1992,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집문당.
- _____, 2001, 『濟州島 巫俗과 그 周邊』, 집문당.
- _____, 2003, 『한라산 오르듯이』, 각.
- _____, 2004, 『민속사진집 靈』, 각.
- _____, 2005,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Abstract

Accomplishments of and challenges for studies on Jeju's shamanism and shamanic songs

Kang, So-Jeon*

This paper summarizes the accomplishments and challenges of 60 years of studies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Japan, on shamanic songs and shamanism in Jeju. It first analyzes research on shamanic songs, then on shamanism. In each field, the results of the scholars who have shown continued academic interest are diachronically summarized.

The research results on shamanic songs and shamanism in Jeju began to appear in earnest from the 1960s. Such pioneers as Jin Seonggi, Jang Joogeun, and Hyun Yongjoon have taken the lead. In particular, Hyun Yongjoon has accomplished a great deal in terms of the scope of his study, encompassing both shamanic songs and shamanism itself. The academic findings of his successive scholars including Moon Moobyung, Kim Heonseon and Kang Jeongsik are also noteworthy. Research on shamanic songs and shamanism in Jeju has led the Jejuhak, or academic studies on Jeju.

There still remain challenges for studies on shamanic songs and shamanism. It is necessary to apply research by genres and types to shamanic songs. In the case of shamanism, an interest is required in various forms of ritual, shamans, believers in shamanism,

* Jeju National University

shamanic music, and shamanic tools. A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to see the true nature of shamanic songs and shamanism.

Since shamanic songs and shamanism are closely related, certain procedures to confirm their relationship are to be taken. Through comparative studies, we need to identify their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and move on to the next step to establish general principles and theories. Publication is imperative for research materials that are highly recognized for their outstanding academic value.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researchers is also a big challenge to remain.

Keywords : Jeju-do, Shamanic songs, Shamanism, *Jejuhak*

(Academic studies on Jeju), Hyun Yongjoon

교신 : 강소진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islandnine@jejunu.ac.kr)

논문투고일 : 2018. 07. 22

심사완료일 : 2018. 08. 02

게재확정일 : 2018. 08. 06